**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에 가능.

매주 토요일에 예배참석 신청 마감.

**ㆍ대림절 첫 주일:** 11월 28일 주일

**ㆍ헌금:** 비대면 예배드리신 분들은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그리스도인의 생활영성 1기 수료자:** 김영희, 김평님, 김학순, 유근임,

우선화, 정주애, 한상철, 김성희

**ㆍ2022년 매일성경 신청:** 다음 주일까지

**ㆍ청년부 총회:** 오늘 16시 Teestube

**ㆍ겨자씨 모임:** 11월 20일(토) 15시 우리교회 Teestube

**ㆍ귀가:** 오경민

**ㆍ생일축하:** 박요셉, 김찬송, 손민주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백신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삿6:25-40 월/삿7:1-14 화/삿7:15-25 수/삿8:1-21

목/삿8:22-35 금/삿9:1-6 토/삿9:7-21 일/삿9:22-45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4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1월 14일** | **11월 21일** | **11월 28일** | **12월 5일** |
| **예배기도** | 손재호 | 박종희 | 김혜경 | 허지은 |
| **말씀일기** | 서연주 | 김성희 | 박상훈 | 조준호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우선화 조경숙 |

**38-46호 2021년 11월 14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유**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21장 2절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56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438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손재호 안수집사서연주 교우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5:1-27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유산**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찬송/Gemeindelied .…………………………….. 430장 ……………..…………………봉헌/Kollekte……….......................................................................................................... | 설교자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서연주 교우의 말씀일기-‘어떤 상황에서도’(사사기 6장) ◀**

사사 드보라가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손에 넘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신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 이상하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 대목으로 유추해 보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흡사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정도였던것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상하다.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드온이 밤중에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과 제단을 무너뜨리자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려 들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리라 계획하신 것을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많은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현재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아마 그들의 우상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절절히 붙잡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가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또 다시 구원해 주셨듯, 이런 어리석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내 문제 보다 아니 이 세상 어느 것 보다 크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려 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